

# “유물은 백번의 붓질·천번의 입맞춤 고고학자로 불려지는 게 좋습니다”

32년 박물관 인생 마감...조현중 前 광주박물관장

프랑스 외교장각 도서 반환 주역  
신창동 유적 발굴 가장 기억 남아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고고학자로서 ‘신창동’이라는 좋은 유적을 만나 마음껏 연구할 수 있었고 후배들과 여러 기획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박물관을 떠나게 됐지만 항상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조현중(60) 국립광주박물관장이 3일 퇴임했다. 그는 국내 고고학 유적을 대표하는 신창동 발굴을 주도한 것을 비롯해 한·일 교류사를 복원한 송도패총(松島貝塚) 등 굵직한 발굴에 참여했다. 발굴 유적지만 전국 40곳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전뺨가 굵은 고고학자다. 그를 만나 문화재와 함께 해온 삶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1984년 국립박물관에 입사해 근무한지 꼭 32년이 됐지만 대학 때 현장실습까지 더하면 인연을 맺은지 40년이 넘는다. 그동안 남들이 잘 말하지 않으려는 전시기획, 박물관 개관 준비 등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담양 출신 조 전 관장은 전남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반 학예직으로 출발해 국립제주박물관 초대 관장(2000~2002),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고고부장·학예연구실장 등을 거쳤다. 프랑스와 외교장각 도서 반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2006년 국립중앙박물관 북한문화재 특별전을 담당하며 평양을 오가기도 했다. 지역 출신으로 첫 국립광주박물관장(제6대·2007~2009)에 오른 데 이어 8대(2011~2016) 관장도 역임했다.

“원래 꿈은 역사학자였어요. 그 시절 인문학도라면 누구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였거든요. 지

난 1975년 대학교 1학년 때 담양댐 수몰지구 현장실습을 나간 게 고고학에 뛰어들 계기가 됐죠. 당시 잔심부름만 했지만 출토되는 유물을 보고 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역시 ‘신창동 유적’이었다. “1992년 국도 1호선(광주~장성) 확·포장 공사를 할 때 연약지반에 큰 돌을 깔아 토대를 다진다든 소문을 듣고 달려갔어요. 퇴적지형이라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거든요. 그때 지금까지 문화재 조사보다는 일단 믿고보자는 식이었죠. 도착 하니 토기와 범시 덩어리가 보였어요. 몰래 수거해 와서 조사해보니 초기 철기시대 유물이었죠.”

우리나라 최초 철기시대 농경 유물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최초인 까닭에 발굴 경험도, 기술도 부족했다. 조 전 관장은 “기술을 더 배우고 발굴하지는 의견에 따라 일단 현장을 덮고 일본에서 유적조사 방법론을 공부하는 등 3년 뒤 발굴을 재개했다”며 “신창동 유적은 서둘러 발굴하는 것 보다는 중국 전사황릉처럼 시민들이 발굴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유적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1989년 여수 송도패총(松島貝塚) 발굴 일화도 재미있다. 그가 현장에 가기 전 동료에게 “흑요석(화산암) 유물이 나오면 우리 전국적으로 뜨겠다”고 농담했는데 진짜 발굴된 것이다. BC 4300년 전 흑요석 돌칼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돼 고대 한일 교류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됐다. 또 1986년 주암댐 수몰현장에서 태풍에 물이 불어나 한밤중 유물을 들고 피신한 일도 있었다.

“유물은 100번의 붓질과 1000번의 입맞춤이 있어야 탄생해요. 저는 아직도 ‘고고학자’로 불려지는 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광주박물관장을 맡은 뒤로는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에 ‘박물관 숲 이야기’, ‘박물관 화원’ 등 시민참여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기획했다.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만 나열·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나 뒷 배경을 알려줘야 관람객들이 하나라도 더 알 수 있고 기억에 남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문화재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시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광주에 문화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내 나이가 어때서”

70대 치어리더 ‘낭랑 18세’ 오늘 KIA 챔피언스필드 무대 올라

건강나이 50대...체형 교정되고 자신감 생겨  
전국 대회 입상·댄스강사 활동...재능기부도

치어리더는 수만 명의 관객이 찾는 프로야구장에는 선수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특급 조연’이다. 관중석 맨 앞 응원 단상에서 선수와 팬의 흥을 돋우는 ‘야구장의 꽃’이다.

전남 70대 할머니 치어리더들이 4일 오후 6시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KIA-롯데’ 전 무대에 오른다. 이들 할머니는 (사)전남치어리더협회 주도로 지난 2013년 결성된 치어리더팀 ‘낭랑 18세’ 팀원들이다. ‘낭랑18세’팀은 모두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균 연령은 75세다.

(사)전남치어리더협회(회장 조혜란) 청소년 치어리더팀의 지난 4월 KIA 경기 시범 공연이 인연이 돼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 12명의 할머니들이 무대에 오른다. 최지연 사무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할머니들은 즐거운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아쉬워했다”고 했다.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치어리더를 한 것은 아니다. 전통문화놀이협회에서 노인체조 분과 코디네이터로 건강체조를 배우던 할머니들은 치어리더를 접한 뒤부터 매력에 푹 빠져 결국 치어리더팀을 결성했다.

조 회장은 당시 할머니들에게 운동에 대한 동기와 재미, 흥미를 부여할 방법을 찾다가 치어리더라는 방법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운동을 통해 되찾은 자신감과 성취감이 젊은

치마와 민소매 상의에 대한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했다. “나이들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탄력 없어졌다며 짧은 치마 입는 것도 꺼리던 할머니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협회 관계자들 설명이다. 건강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77세의 나이에 보건소를 찾았다가 ‘건강 나이 50세’라는 판정을 받는가 하면, 또래 노인들을 위한 댄스강사로도 나설 정도다.

유금숙(77)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었는데 치어리더로 체형 교정이 됐다”면서 “임도도 못했는데 횡단보도를 달려서 건너게 됐다”며 웃었다. 김정제(76) 할머니도 “뒤통 노인에 취급받다가 치어리더를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살도 빠졌다”면서 “야구장 공연을 한다니 벌써 실렌다”고 말했다.

실력도 일취월장했다. 지난해에만 ‘행복한 생활체육 전국 치어리더스포츠클럽 축제’ 일반부 은메달과 용인시 주최 ‘전국 치어리더 페스티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라는 데도 많아졌다. 서울 종로 노인복지관 초청 공연도 했고 거리공연 등 재능기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전남치어리더협회는 어린이날인 5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지역 최초 ‘어린이 스포츠 치어리더팀 ‘아·꿈·세’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의 공연을 펼친다. /김지용기자 dok2000@

## 여수~고흥 다리 명칭 ‘팔영대교’...여수시 거부

“전남도 결정, 기준 위반...이의신청 할 것”

전남도와 여수시가 다리 명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방법원이 3일 여수~고흥 다리를 ‘팔영대교’로 확정했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대학교수·지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남지명위원회 지명위원 9명은 지난 달 29일 지명위원회를 열어 여수시 화양면 적금리와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를 잇는 다리(총 길이 1.34km) 명칭을 팔영대교로 결정했다.

이 팔영대교는 여수와 고흥 간 9개의 섬을 잇는 11개의 다리 중 하나로, 여수~고흥 간 연속·연도 교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다리다.

지명위원회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고흥 팔영산의 경우 전남지역 대표 명산으로 상징성

이 높고 팔영대교로 명명될 경우 관광객들이 다리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여수 지역 주민들의 경우 옛부터 고흥 생활권에 속해 생활해온 점도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지명위원회는 11개 다리 중 7개는 여수의 섬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 뒤 나머지 2개의 다리 명칭은 여수(화양대교)와 고흥(팔영대교)이 원하는 지명을 각각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수시가 지명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섬 이름으로 다리의 명칭을 정해왔던 기본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토지리

정보원의 지명표준화 편람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남도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교량 명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토지리원 지명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남해대교(하동-남해), 거제대교(통영-거제), 진도대교(해남-진도), 완도대교(해남-완도), 고금대교(장흥-완도), 소록대교(도양-소록도) 등 섬 이름을 딴 교량들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시가 말한대로 섬 이름으로 다리 명칭을 정한 게 잘못됐다면 화양대교 역시 다리 이름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는 여수시 스스로 기본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주 안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의결된 국가지명위원회에 해당 다리 명칭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리 명칭은 해당 시군 지명위원회(1심)와 해당 광역단체 지명위원회(2심) 등을 거쳐 국가지명위원회(3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1분기 광주 땅값 0.63% 올라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 2.31% ↑

1분기 광주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다른 광역시보다 낮은 편에 속했다. 광주·전남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나주혁신도시 빛가람동이었다.

3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6년 1분기 전국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모두 땅값이 오른 가운데 지방 땅값 상승률(0.74%)이 수

도권(0.46%)보다 높았다.

광주의 지가 상승률은 0.63%로 전분기 상승률 0.85%보다 낮지만 지난해 1분기 0.59%보다는 높았다. 전국 평균(0.56%) 보다 높으나 다른 광역시보다는 낮은 편에 속했다.

전남 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0.55%로 전분기 0.8%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1분기 0.53%보다는 상승률이 소폭 높아졌다.

전남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동으로 2.31%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6. 5. 30(월) ~ 6. 8(수)
- ② 전 형 일 : 2016. 6. 10(금)
- ③ 합격자 발표 : 2016. 6. 14(화)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 학 원	학위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골드

-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UM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우선하여 드립니다.